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0-012 거문서 서대문구 송암로 2가 35번지 기린로사회복지관내 3층
 Flr 3th, GILSD building #35, ChungGyeongro 2 ga, Seodaemun Gu, Seoul, Korea
 Tel.(82-2)326-4016, 392-5232 Fax.(82-2)326-4017
 Internet: <http://witness.pcoenet.or.kr> E-mail: mss@pcoenet.or.kr

문서번호 : 장대첩 제 99 - 92호

1999년 6월 23일

수 신 : 조 서 현 교수님께 929 - 9599

발 신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와 2000년 일본군성노역전범법정 학생위원회

제 목 : 2000년 일본군성노역전범법정 학생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 여름은 더위가 좀더 심더니, 오늘은 한 여름 한 낮처럼 무덥고 습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네요. 어떻게든 지내시는지요.

장대첩은 참아내실라 참다 여간히 바쁘고 출간한 나날을 보내고 왔습니다를 그동안, 장대첩에게는 참아내실라 병환 소식을 잘군요. 요런 세상, 그렇게 강하게 버티 오셨는데, 참아내실라 문치가 패기되는 그 날을 꼭 관망하셔야지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 간직합니다.

장대첩은 일본정부의 태도를 대항 때마다 낙심도 되고 실망하는 밤도 생기지만, 제라딘의 그런 낙심에 있는 것은 언제나 끈튼히기 되듯 지켜 주고 있는 청년 학생을 떠올립니다.

2. 장대첩과 청년학생들이 함께 기리하고 있는, 의미 있는 행사에 선생님과 강의를 초청해 주시길요. 꼭 찾아 이렇게 연락 드려게 되었습니다. 형사는 2000년 봄에 준비하고 있는 2000년 일본군성노역전범 국제 법정 학생위원회(이하 학생법정)입니다.

수신, 2000년 일본군성노역전범 국제 법정(본법정)부터 소개 드려야하겠네요. 지난 1997년 12월, 대만,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일본군'위안부'피해 국가와 피해자 단체들은 기리하고 일어난 양심있는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20세기의 마지막 유언 100을 실현하기 위해 성노역 문제를 증서기 안에 의무로 넣고 인권과 평화의 새 역사를 열라. 1998년 성노역, 일본군성노역전범을 처벌하는 시민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칭은 일본군성노역법정 또는 성노역법정)이란 의미, 청년 학생들 또한 항의적이고 강의로운 인권법정을 열기로 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학생법정입니다.

3. 국가는 중립적이고, 상설학도 무관한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장대첩들이 학업으로는 법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 법정에 참여하는 일본군성노역 피해 여성 노년 선생님을 학생법정의 자문위원으로 모셔주시길요. 장대첩은 학생법정 법정을 바랍니다.

